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G2 소비모멘텀 검증국면. KOSPI에 미치는 영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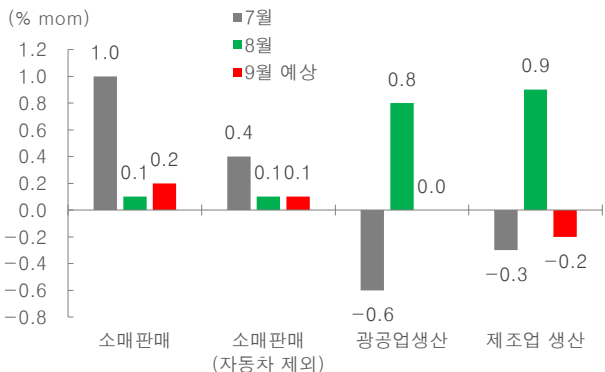
- 삼성전자 실적 쇼크, 5만원대 진입. 레거시 반도체 수요 회복 여부가 관건
- 미국 9월 소비 모멘텀(전월대비 0.2%) 견고. 중국 실물경기, 소비 회복 여부 중요
- 중국 9월 소매판매, 광공업생산 개선 기대. 한국 수출, 주식시장에 훈풍 유입 가능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9.1조원으로, 컨센서스 최저치였던 9.7조원을 하회했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5만원대로 진입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문제는 아니었다고 본다. 실적 가이드스 발표 직전 9조원 하회 가능성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 총담금이 1조원 이상 반영되었다는 점도 반도체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TSMC발 호재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Si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삼성전자 주가 약세는 Si반도체에서 경쟁력 약화와 함께 레거시 반도체 수요 불안이 자리한다. 삼성전자의 Si반도체 경쟁력 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는 레거시 반도체 수요 회복 여부가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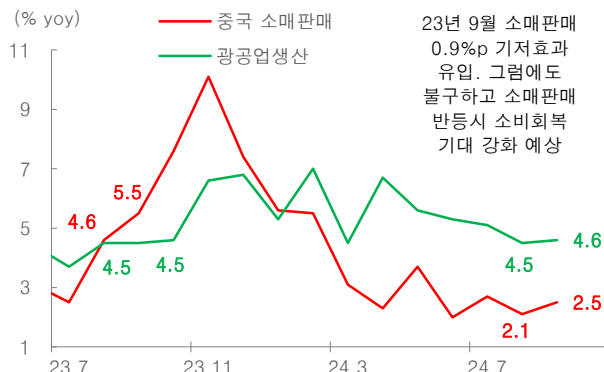
이번주에는 미국 소비와 중국 실물 경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소매판매(17일)는 전월대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소비모멘텀이 여전히 견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력하고 연속적인 전방위적인 경기부양패키지에 정책 기대가 증폭된 중국은 13일 9월 CPI와 PPI, 14일 9월 수출입, 18일 3분기 GDP와 소매판매, 광공업생산, 고정자산투자, 부동산투자 등의 실물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경기 부양정책 기대로 급반등한 이후 단기 매출소화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국, 홍콩 증시에 경기 회복이라는 더 견고한 모멘텀이 유입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컨센서스 기준 중국 9월 소매판매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8월 2.1%(전년대비)에서 9월 2.5%로, 광공업생산 또한 4.6%(8월 4.5%)로 모멘텀 반등을 기대한다. 이 경우 24년 중국의 5% 성장 기대(3분기까지 연간 누적 4.9% 예상)를 자극하며 중화권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수출, 주식시장에도 훈풍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중국 인민은행과 정부, 지방정부의 경기부양 패키지의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유입되기 전부터 미국에 이어 중국의 소비 회복 가시성이 높아진다면 삼성전자의 레거시 반도체 수요 회복 기대와 함께 KOSPI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중국의 경기부양 패키지는 부동산, 증시 부양과 함께 소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 실물 경기, 소비 회복의 나비효과를 기대한다.

양호한 미국 소비 모멘텀 기대



중국 실물 지표 반등 시 경기회복 기대 커질 것



자료: 미국 통계국, 중국 통계국, CEIC,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